



**WOOSONG UNIVERSITY**

대학 글쓰기

학술 에세이 1차

분반: 008반

학번: 202211208

이름: 주 성국

지도 교수: 이원석

4차 산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자동화나 로봇, 인공지능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차 산업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혁명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혁명을 말한다. 국민들의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개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한 끼를 먹더라도 더욱 맛있고, 다양하며, 간편한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증가하면서 푸드테크는 외식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외식이란 집에서 식사를 해 먹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음식과 서비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음식점이나 레스토랑 등에 푸드테크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서 많은 장점과 단점이 생겨나고 있는데, 단순 노동 같은 부분은 로봇과 기계가 더욱 뛰어나지만, 인지적인 능력에서는 인간이 앞서고 있고 외식이란 단순 음식을 먹으러 가는 목적도 있지만, 사람들과의 감정교류,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가는 부분도 있으므로 현재 외식산업에 푸드테크를 도입하는지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여러 주장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나는 푸드테크를 외식산업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먼저 현재 푸드테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식물성 성분을 통해 대체육을 만들어 채식주의자들에게 기존에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대체할 만한 대체육을 생산하는 것, 녹지 않는 얼음을 개발하는 것 등 많은 예시들이 존재한다. 과거 기계는 육체적인 능력에서 인간을 뛰어넘어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4차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계는 단순히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능력, 운영 능력, 예측 능력 등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인간을 초월했다. 국내 커피 브랜드 커피에 반하다의 로봇 팔 '마르코'가 인간 종업을 대체하여 커피나 음료를 만들고 있다. 기계는 쉬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으며,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기분이 나쁘다고 업무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처럼 기계는 인간과 달리 쉬지도 않으며, 감정으로 인해 업무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다.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 외식업계는 기계라는 존재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단순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 운영 측면에서 인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년 떠오르는 트렌드를 분석, 예측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인간이 기계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고'에서도 이미 기계는 인간을 뛰어넘었다. 단순 노동의 자동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뛰어난 예측, 분석 능력 등을 미루어 보아 외식산업에 푸드테크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 기계는 인간보다 육체적, 운영, 분석, 예측 능력에서 인간을 월등히 뛰어 넘었다. 또한 기계는 피로를 부리거나 자신의 감정을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배불리 점심을 먹어 기분이 좋아 넉넉한 인심으로 다른 고객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거나, 머리카락이 아프다는 핑계로 직장에 나오지 않아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즉

기계는 항상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셰프인 것이다. 또 기계는 신뢰도부분에서 인간보다 뛰어나다. 요리나 식품을 생산하는 것은 위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기계는 인간과 달리 귀찮다고 위생에 안 좋은 행동을 하지도 않고,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위생에 소홀해 하지도 않는다. 2020년도 석사학위논문 레스토랑의 푸드테크 적용이 고객감정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객감정의 측정 항목 중 '푸드테크에 사용이 믿을만하다'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푸드테크의 이용, 즉 사람보다 기계를 더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객태도의 항목에서는 '나는 이 레스토랑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이 레스토랑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고 있고, 그것을 활용한 부분에서 인간보다 더욱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푸드테크를 이용하여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주)우아한 형제들은 복지가 좋기로 소문난 신생 업체이자, 요즘 잘나가는 회사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배민수산' 이라는 새로운 배달 서비스를 추가하여 화제가 되었다. 회집 같은 경우 신선도가 중요해서 배달업체가 별로 없었는데, 퀵서비스와 협력해 굳이 회집에 찾아가지 않아도 신선한 회를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편리함뿐만 아니라 퀵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사분들 같은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로 인해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또 푸드테크는 기존의 없던 기술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새로 등장하는 것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 주춤할 수 있다. 비행기도 초기 비행기는 우리가 아는 비행기와 달리 정말 많은 형태의 비행기들이 존재했다. 그 당시 비행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언가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비행기' 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이처럼 과학은 언제나 해답을 찾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했다. 누군가에겐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비행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두 적응할 것이다.

푸드테크는 4차 산업기술의 발달으로 외식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람들은 푸드테크라는 막연한 기술이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야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커피의 반하다의 '마르코'나 대체육, 녹지않는 얼음, 배민 수산과 같이 많은 예시들이 존재한다. 앞으로 외식산업에 푸드테크가 도입되지 않는다는 상상은 할 수 가 없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며, 또 배민수산같이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다수가 좋아하는 것들만 선호하지 않도록 외식산업의 개별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